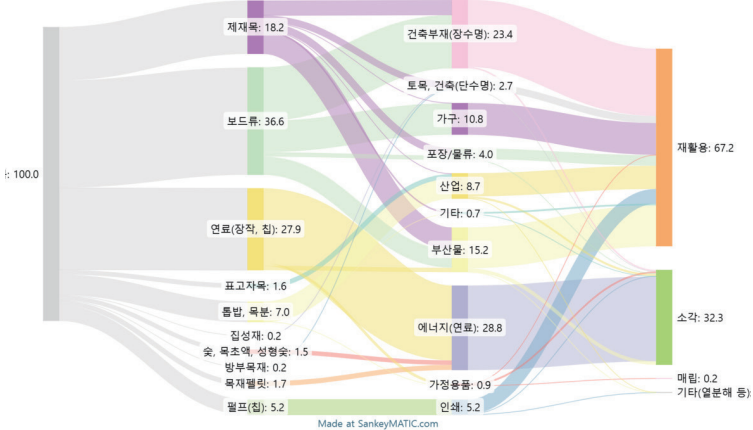


생산부터 폐기까지, 목재자원 분석 모델 개발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물질흐름분석 기반 시스템 구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내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질흐름분석(MFA)’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물질흐름분석은 물질의 투입·생산·이용·폐기의 전 과정을 정



▲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목재의 탄소 흐름까지 구명할 수 있는 자원 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질흐름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 이용 현황과 보완이 필요한 통계 항목(부산물 용도, 재활용률 등)을 도출하고, 자원 축적량을 활용해 목재 자원의 탄소 흐름도를 확인했다.

이번 분석에는 국립산림과학

원에서 자체 구축한 LCI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었으며, 탄소 배출과 저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국산 목재의 환경가치를 반영한 전 과정 물질흐름분석 모델 개발’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이번 연구는 목재자원 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목재 시장을 전망하는 도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 백두대간법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백두대간법 20주년 기념 국회심포지엄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

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함과 동시에 산출기 능선을 연결해 하나의 백두대간이라는 역사성과 민족문화로서의 상징성도 함께 보전하고 있다.

산림청은 보호정책으로 경제적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백두대간 인접 거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해 20년간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77억 원의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을 지원해 지역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2006년부터 백두대간

684km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5년마다 백두대간 식생, 식물상, 동물상 등 자연환경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는 자원실태변화를 조사해 정책 기반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학술적 기반 강화에 기여한 이정은 한국산림과학회 연구원, 백두대간 인문자원 발굴과 미래 가치 활용에 기여한 김우선 백두대간옛길 보존회 이사장, 백두대간 희귀식물의 과학적 보전 연구를 위해 노력한 한성경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주임에 백두대간 유공 표창 3점을 수여했다.

이마라 산림청 차장은 “논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지역과 상생하는 백두대간이 되도록 보전과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쉬워진다!

용어 정비 및 입업정보 활용 지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산주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등록했던 것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입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나 산림사업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주가 보다 쉽게 경영계획

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 내용이 담겼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내 용	현 행	개 선
표준지* 조사 * 산림조사, 축적 등 기밀이 되는 지역	현장조사	입업정보 다드림(임향), 숯가꾸기 등 산림사업 정보 활용
표준지 경계	표시	생략 가능
입목측정* * 나무 부피의 합	기재	숯가꾸기 단계에서는 생략 가능
경영계획도	지형도 (1/5000 또는 1/6000)	임향사진, 지형도(축척 미포함) 등

▲ 산림청 제공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의 미래, 과학적 평가로 대비한다”

‘한눈에 보는 우리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자료 공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25일(월),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열린 한국산림과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산림·임업분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2023년 발간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종합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한눈에 보는 우리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자료도 함께 공개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산림 기후변화 영향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표준화된 조사와 전문가 협력을 통해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수목원 등 관련 기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종합보고서를 완성했다.

종합보고서는 법률상 평가 항목을 준용해 ▲산악기상 ▲산림자원 ▲산림생태계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교란 ▲산림생물다양성 등 6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를 담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최형태 과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제공하고 맞춤형 적응 방안을 마련해 정책과 현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생식물 보전·복원·활용 위한 실행전략 마련

산림청, 한국식물보전전략 2030 수립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 속에서 국내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한국식물보전전략 2030(KSPC 2030)’을 수립

했다. 한국식물보전전략이란 식물다양성 확보와 식물종 상실방지를 목표로 2002년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식물보전전략에 기반한 우리나라 식물보전

을 위한 실행전략이다.

산림청은 2008년 ‘한국식물보전전략(KSPC)’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과 이행을 통해 보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전략은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목표와 연계한 식물 중심 실행전략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수목원, 연구기관 등 다양한 보전 주체들이 목표 과제에 대한 자체 실행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이행 체계인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안진아 기자
mical0210@naver.com

산림조합중앙회, 아이들과 목공 체험하고 탄소중립 실천해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체험교실 운영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330명의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탄소중립에 관한 교육과 산림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육은 ‘2025년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아·청소년에게 산림의 가치를

알리고 목재 활용을 통해 생활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 지원을 받아 복권기금(복색자금)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회차별로 진행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산림의 탄소중립 기능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목목심기, 목공체험 등이었다.

이와 관련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숲체험·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에게 산림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활용을 권장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좋은 사료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함께합니다.

✔ 원료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검사시설을 이용해 신선하고 질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원료배합으로 고효율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축종별, 사육단계별로 원료를 합리적으로 배합해 사료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저렴한 사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원료를 염가로 구입해 수입원료의 관세를 인화하는 등 제품의 생산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양가치와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